“정부 사업이라도 성역 해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

승용차가 진주 인터체인지를 지나자 시가지가 바로 나타났다. 시가지를 허리띠처럼 두르며 흐르는 남강도 운전석 차창으로 들어왔다. 하늘도 강물도 모두 쪽빛이었다. 그러나 남강은 무심한 하늘과 달리 2차 진주성전투에서 죽어간 고혼들의 비통한 눈물처럼 가슴을 아리게 했다. 전사자의 핏빛 눈물이 푸른 빛깔로 변색해 슬프게 흐르고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승군들이 머물렀던 호국사는 진주성 안에 있었다. 강가에 솟구친 누각 촉석루와 논개가 왜장을 안고 몸을 던진 의암도 진주성 안에 있었다. 대연 거사는 시내로 진입하는 비좁은 도로가에서 승용차의 시동을 껐다. 남강을 모르는 체 무심코 지나칠 수 없었다. 촉석루 난간에 선 사람들도 남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암에 서서 사진을 찍는 남녀도 보였다. 이제 진주성은 공원관광지로 변모해 사람들을 부르고 있었다.

대연 거사가 찾아가는 곳은 촉석루가 아니라 호국사였다. 대연 거사는 두 선지식의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었다. 한 사람은 영혼의 스승이 된 혜암 스님, 또 한 사람은 내고(乃古) 박생광 화백이었다. 대연 거사는 쌍봉사 옆에 자리한 공방을 떠날 때부터 가슴이 설렜다. 일기에는 대학시절 스승이었던 박생광 화백에 관해서 뒤늦게 스크랩해 둔 메모도 있었다.

박생광 화백은 불우한 천재화가임이 틀림없었다. 대연 거사가 다니던 대학의 시간강사 시절은 물론이고, 인생 말년인 75세를 넘어서까지도 화단의 주변을 맴돈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였던 것이다. 별세하기 전의 마지막 5년이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를 영원히 잊어버렸을 것이었다. 대연 거사는 아침에 보았던 메모를 다시 떠올렸다.

‘박생광 화백은 1904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4세 때 진주농고에 입학한 뒤 친구 이찬호(청담 스님)와 함께 호국사로 가서 입산한다. 그러나 다음해인 1920년 진주농고 일본인 미술교사의 추천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1924년 일본 ‘선전(鮮展)’에서 동양화 부문에 입선하고, 1929년 ‘명랑미술전’에서도 입선해 일본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1945년 귀국 후에는 진주에 정착해 작품활동을 계속했고, 1960년도에는 ‘동해일출도’ ‘의랑순국도’ 등 민족성이 짙은 작품들을 천착해서 그렸다. 특히 1982년 79세에 인도 성지순례를 하고 나서부터 불교정신에 뿌리를 두고 1985년 82세로 별세할 때까지 ‘출가’ ‘열반’ 등 강렬한 색채의 불교적 작품들을 남겼다.’

호국사가 청담 스님과 인연이 있는 절이라는 것도 메모를 보고 나서야 기억해 냈다. 그 전에는 어디선가, 아마도 박생광 화백의 강의시간에 청담 스님과 진주농고 시절 친구였다는 얘기만 들었지 호국사로 함께 가 입산했다는 사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작곡가 드뷔시의 말을 중얼거리며 승용차의 시동을 켰다.

‘예술가란 죽은 뒤가 아니고는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존재이다.’

박생광 화백은 늙은 노년에도 생활이 궁핍해 단칸방에서 살았다. 전세방을 전전할 만큼 가난했던 사실보다, 방이 좁아 1000호 같은 큰 그림을 작업할 때는 화선지를 조금씩 말아 가며 그렸다는 사실이 제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노년의 지병으로 석불이 산재한 경주 남산을 화폭에 담지 못하고 별세한 것도 그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쉽게 했다.

애석하기는 대연 거사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도예 작품들을 박생광 화백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평가를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도예를 하든 미술을 하든 ‘무엇이면서도 무엇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는 박생광 화백의 말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뿐이었다. 실제로 박생광 화백의 후기작들은 불교적이면서도 불교적인 것을 초월해 있다는 것이 화단의 평가였다. 그러나 대연 거사로서는 참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대연 거사는 호국사 주차장 끝에 승용차를 세워놓고는 바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중간쯤에 설치한 매표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관광객에게 표를 파는 진주성 관리직원도 없었고, 신도들을 안내하는 호국사의 종무소 직원도 없었다. 평일 오전이어서인지 호국사 경내에도 사람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연 거사는 대웅전에서 나오는 보살을 발견하고는 주지스님이 어디에 계신지 물었다.

“성법 스님 계십니까.”

“어디서 왔십니꺼.”

“주지스님과 전화로 약속하고 들렀습니다.”

“기다려보이소. 주지스님 방에 계실낍니더.”

잠시 사라졌던 보살이 나타나 성법 스님에게 안내했다. 주지스님 방은 상담실처럼 신도들과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종무실과 붙어 있었다. 벽에 걸린 혜암 스님의 친필 액자와 성법 스님이 해인사 주지로 살 때 촬영한 칼라기념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다. 대연 거사가 엎드려 인사하자, 성법 스님이 군더더기 없이 시원하게 말했다.

“아침 일찍 전화하신 분이군요.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혜암 큰스님의 맏상좌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을 언제 어떤 인연으로 뵀습니까.”

대연 거사도 용건을 바로 드러냈다.

“제가 왜 출가했는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겠지요.”

성법 스님과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았지만 대연 거사는 스님의 성격을 직감했다.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에다, 의리가 단단해 외호를 잘하는 것 같았다.

“모친은 불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그런 인연으로 스님들이 저의 속가 집에 많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장스님, 고봉 스님, 의현 스님을 어릴 때부터 보았지요. 저의 출가 동기는 이렇습니다.”

학창 시절, 스님은 친구들하고 은해사 산내암자인 중암으로 올라갔다. 스님은 낭떠러지 위에 자리한 중암에서 이십대 후반의 한 스님을 만났다. 그런데 잠깐 동안 친구들 하고 잡담도 하고 암자도 구경하는 사이에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 모두가 탈속한 분위기의 그 젊은 스님을 찾았다.

젊은 스님은 어느새 중암을 내려가 낭떠러지 밑의 산길을 홀연히 걷고 있었다. 불과 이삼십 초가 흘렀는데, 스님은 보통사람들이 이삼십 분 걸리는 거리에서 총총히 사라지고 있었다. 학생들은 그 젊은 스님이 축지법을 쓰는 도인이구나! 하고 수군거렸다. 고등학생이었던 성법 스님은 그 젊은 스님이 부러웠다. 스님은 세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사는 것보다 출가한 뒤 축지법을 익혀 이쪽저쪽을 자유롭게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꿈을 꿨다.

‘스님들은 축지법을 익혀서 다니는구나. 나도 출가해서 도인이 되고 싶다.’

그 후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친구 한 명과 함께 동화사로 출가했다. 출가한 스님은 행자 이십여 명과 함께 <치문>과 <사미율의>를 배웠다. 동화사에서 한 해 정도를 행자생활을 하다가 하안거 해제한 날 해인사로 갔다. 훗날 사숙이 되는 건장한 봉주 스님을 따라서 갔다. 비로소 스님은 도인들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가슴이 부풀었다. 어느 날 봉주 스님이 해인사에 가면 도인들이 많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도 스님은 도인이란 축지법으로 다니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무예의 고수로 여겼는데, 백련암에 주석하고 있던 성철 방장스님도 그런 도인인 줄 알 정도였던 것이다.

“일타 스님이 계시던 지족암에 노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노스님의 아들이 봉주 스님이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잤지요. 그 이튿날 봉주 스님을 따라서 지금 총무원장 하시는 지관스님과 일타스님을 뵀어요. 사미계 수계는 며칠 후 동화사에서 같이 온 행자 열댓 명과 함께 받았습니다. 7월 말쯤이었어요. 당시 우리 스님은 지리산 토굴에 계셨습니다. ‘선방에서 공부만 하시는 훌륭한 수좌스님’이라고 은사로 맺어 주었지요. 성법이라는 법명은 우리 스님이 해인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일타스님이 대신 지어주셨습니다. 일타 스님께서 ‘법을 깨달아라’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수계한 뒤 곧바로 공양간으로 갔다. 강원을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 당시는 산을 지키는 산감을 하거나, 공양간에서 3개월 이상 살아야 강원에 방부를 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은 행자생활을 동화사에서 한 번 하고, 해인사에서 두 번째 하는 셈이었다.

“같은 날 사미계를 받은 성한 스님은 밥 짓는 공양주를 하고, 나는 국을 끓이는 갱두 소임을 보았지요. 그때 해인사 원주스님은 종성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성한 스님은 일이 고된지 한 달 만에 떠났고, 저는 갱두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공양주를 맡았지요.”

총림이 있는 해인사에서 스님이 되겠다고 전국에서 행자들이 모여드는 바람에 공양간의 밥과 국의 양은 엄청났다. 밥에 돌이 들어가거나 국을 잘못 끓이면 대중공사를 당하기도 했다. 공양간의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잠잘 시간이 부족했다. 잠 한 번 푹 자보는 것이 공양간 행자들의 소원이었다.

해인사에 온 지 한 달 만에 사미승 성한이 ‘해인사를 떠나자’고 은근히 꼬드겼다. 강원에는 다시 올 수 있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부산으로 도망치자고 했다. 성법은 생각 끝에 유혹을 물리쳤다. 절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행자장 돌뱅이가 되기 싫었던 것이다. 그해 겨울이 되서야 사미승 성법은 강원에 방부를 들였다. 강원생활을 하는 동안 혜암 스님이 옥편 한 권을 보내왔다. 평생 동안 은사에게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다. 은사에게 받은 책 선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성법은 강원생활을 남보다 열심히 했다. 일등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던 시절이었다. 혜암 스님과 성철 스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불법에도 눈을 떴다. 도인이란 축지법을 쓰거나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우리 스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지요. 특히 봉주 스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봉주 스님은 72년도에 해인사 주지를 지냈는데, 별명이 ‘호랑이 주지’였어요. 호법신장 같은 분입니다. 대작불사를 한 만불사 주지스님의 은사스님이시지요.”

봉주 스님이 ‘호랑이 주지’란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지금의 장경각 건물을 지켜낸 일화 때문이었다. 핑퐁외교라고 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모택동이 닉슨 대통령에게 자랑한 중국의 국보가 만리장성이었던 바, 박정희 대통령도 만약 닉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무엇을 자랑할 것인지를 참모들과 숙의했던 것이다.

그때 박대통령의 한 참모가 우리나라 국보 중에서 장경각의 팔만대장경판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대통령이 지시해 목조건물인 장경각의 보호 문제도 거론됐고, 급기야 정부는 화재를 예방하고 폭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새로운 장경각을 짓는다는 복안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장경각 뒤편 수미정상탑 자리에다 지금의 장경각을 모방한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의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겠다고 해인사에 도면을 제시했다.

제시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고였다. 얼마 후에는 공사인력과 건설장비들을 투입했다. 대중공사를 벌이던 스님들은 모두 반대했다.

노스님과 수좌들은 우선 콘크리트 건물의 이질감을 부담스러워했고, 해인사가 행주형국(行舟形局) 즉 큰 바다로 배가 움직이는 형국인데 배 밑을 뚫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급기야 젊은 스님들이 건설 장비를 몸으로 막는 충돌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경산 스님이 중재를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지만 해인사 대중 앞에 나서 말 한 마디 꺼내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때 가장 강력하게 나선 이가 바로 주지 봉주 스님이었다. 스님은 ‘아무리 정부사업이라 하더라도 성역을 해치는 일을 용서할 수 없다’고 관리들에게 호통을 쳤다. 뿐만 아니라 봉주 스님의 기를 꺾으려고 경찰이 무장하고 나타났지만 ‘우리 집안을 치려는 도둑놈들이 물러가면 문을 열겠다’고 산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결국 해인사 대중과 정부가 서로 양보해 극락전 터에 새로운 장경각을 지었는데, 그 콘크리트 건물이 바로 지금의 해인사 선방인 소림원인 것이다.

〈계속〉

그림 · 최문정

“세상에서 복잡하게 얽혀 사는 것 보다 출가한 뒤 축지법을 익혀 이쪽저쪽을 자유롭게 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